

“전역 실감 안나... 내년 새 작품으로 인사”

설리 ‘노브라’ 이슈로 화제 장악 스타들, 문화가 돼버린 악플과 대면

배우 김수현 군 복무 마치고 제대
공익요원 판정 받았으나 현역 입대
“연기 너무 하고 싶은데
하반기 결정된 작품 없어”



배우 김수현(31)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1일 제대했다. 김수현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의종 앞에서 취재진과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 팬 300여명이 몰려 전역을 축하했다. 김수현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해 어떻게 보느냐 고민이 많았는데, 군 생활을 잘 마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전역이 잘 실감 나지 않지만, 후련한 기분도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현은 “무대에 있는 동안 여느 용사들과 다름없이 작전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았다. 그래서 특급전사 타이틀을 따기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며 군 생활을 되돌아봤다. 그는 군 생활 중 가장 위안이 된 걸그룹을 묻자 “용사들은 모든 신곡 업데이트를 빠짐없이 한다”며 “뮤직비디오를 정갈 날마다 봤던 것 같다”며 웃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선 “고민도, 생각도, 걱정도 많았는데 연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 작품이 결정된 게 없어서 내년에 작품으로 인사드

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어린 시절 앓은 심장 질환으로 첫 징병검사에서 대제 복무에 해당하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결국 1급 판정을 받아 2017년 10월 23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거쳐 1사단 수색대대에 지원해 본격적인 군 복무를 수행했다. 김수현은 최전방 지역 위험성이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1사단 수색대에서도 일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 진급을 각속 1개월씩 앞당길 정도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고 소속사 카이스트는 전했다. 김수현은 드라마 ‘드림하이’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와 영화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에 출연하며 한류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전역 전에 뷰티 브랜드와 전속 모델 계약을 했고, 영화와 드라마 등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그룹 엑소(EXO) 멤버 디오(본명 도경수·26)는 이날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디오가 조용히 입대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 입대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엑소 메인 보컬 디오는 본명 도경수라는 이름으로 연기자 활동도 병행했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백일의 낭군님’과 영화 ‘카트’, ‘스윙키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JTBC2 토크쇼 ‘악플의 밤’

고(故) 유니부터 최진실까지 적지 않은 스타가 악성댓글(이하 악플) 범람 속에 세상을 떠났어도 악플은 줄지 않았다. 악플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돼버린 시대, JTBC2 토크쇼 ‘악플의 밤’은 스타들이 악플과 아예 대면하고 정면돌파하게 한다. 피하기보다 직면하고 담담하게 대응하면서 자정 작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거수일투족, 말투와 눈빛 그 무엇 하나 책이라도 잡히면 악플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악플 하면 떠오르는 스타는 단연 가수 겸 배우 설리이다. SNS에 다소 낯설거나 논란의 여지를 주는 사진을 올리며 늘 화제물이 선두에 선 그녀. 그런 설리가 ‘악플의 밤’으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악플과 대면했다. 크게 히트한 출연작이 없는 그에게 “인스타그램이 대표작”이라고 조롱한 글에는 시원하게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눈빛을 보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수위 높은 악플에는 “범법행위는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가 불러일으킨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노브라’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이슈에 대해서는 “브래지어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액세서리일 뿐”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설리가 솔직한 의견을 밝힌 후에

는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해당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댓글로 논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JTBC 서브 채널 격인 JTBC2 프로 그래밍에도 설리로 초반 제1회 화제성을 견인한 ‘악플의 밤’은 살펴보면 더 깊이 있는 토크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튜디오 예능 진행자로서는 국내에 견줄자가 없는 신동엽이 무게 중심을 잡고, 친근한 이미지의 김종민과 김숙이 날카로우면서도 있는 주제를 두고 완급을 조절하며 아슬아슬하고도 미묘한 줄타기를 한다. 그중에서도 신동엽은 “편안한 진행”에만 안주하지 않고 없을 것 같은 자신에 대한 악플을 찾아내 읽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신동엽 외에 김숙, 김종민도 악플과는 거리가 먼 스타로 보이지만, 그녀가 있는 악플을 찾아내 ‘무논리’에 시원하게 응수하는 모습이 흥쾌함을 안긴다. 악플은 단순히 스타에 대한 관심이나 욕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혐오 이슈 등 더 포괄적인 현상에 대해 생각해볼게 한다. 화제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두 보여준 ‘악플의 밤’ 1회 시청률은 0.8%(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하며 JTBC 2 신기록을 썼다. 전주 동시간대 시청률이 0.02% 수준임을 고려하면 고무될 만한 성적이다.

/연합뉴스



강경준-장신영, 결혼 1년만에 두 아이 부모됐다

지난해 5월 결혼... 둘째 아이 임신

배우 강경준(36)과 장신영(35)이 결혼 1년 만에 둘째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 소속사 케이스타엔터테인먼트는 1일 “장신영이 둘째 아이를 가져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혔다. 장신영은 2009년 한 차레 이혼을 겪고 2013년 드라

마 ‘가시꽃’으로 강경준과 만나 5년 교제한 뒤 지난해 5월 결혼했다. 장신영에게는 이미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강경준과 장신영은 지난해 SBS TV 부부 예능 ‘동상이몽2’를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은 물론, 강경준이 장신영의 아들과 진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감동을 안겼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광주 세계수영대회 D-10 웹캠 투 광주 평화의 물결 속으로	00 퍼fum(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집다큐 치바이스의 예술세계 평화사상을 품다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루기		25 꾸러기 식자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자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퍼fum(재)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퍼fum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2부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05 PD수첩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00 나이트 라인 3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퍼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마사와 곰(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1~5
07:00 로보카 폴리	13:00 다큐 오늘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사전 브리핑 - 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퍼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똥똥똥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내 인생의 오아시스 중앙아시아 2부 파미르 고원의 사람들>
08:30 몬가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웍스(재)	<시골달인 2부 자연발상의 교수>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치큐브	22:45 건축탐구 - 집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똥똥똥 유치원1~2	23:5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7월 2일 (음 5월 30일 庚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 (음 5월 30일 庚子)
<p>子 36년생 소신껏 응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48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60년생 경험자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인다. 72년생 전환점에 이르렀으니 슬기롭게 임하자. 84년생 부실한 결과를 조려라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2, 01</p> <p>丑 37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49년생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61년생 제때를 만났으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3년생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보인다. 85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답을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2, 03</p> <p>寅 38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50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팔이 이루어라. 62년생 곧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면서 일취월장하겠다. 74년생 진행한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86년생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9, 33</p> <p>卯 39년생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51년생 내용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63년생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관련되는 형태이다. 75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87년생 허상일 뿐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77</p> <p>辰 40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52년생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64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환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76년생 강이 바다에 이르는 듯한 대안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88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 두자. 행운의 숫자 : 87, 85</p> <p>巳 41년생 무주공산에 걸고 있는 판도라 할 것이다. 53년생 귀한 옥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도다. 65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77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89년생 바늘 헤리 못 매어 쓰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32</p>	<p>42년생 배려에 깊이 감사하게 되리라. 54년생 조금씩 해치지 않는다면 길운을 맞으리라. 66년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78년생 과장은 거짓의 결과지임을 알자. 90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62</p> <p>43년생 순발력 있는 대처가 절실한 때이다. 55년생 정비해 뒤라. 67년생 장고하여 판단한다면 참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79년생 내색해버린다면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음을 알자. 91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처음부터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4, 79</p> <p>44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56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68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보인다. 80년생 공감과 친화력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92년생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0, 39</p> <p>45년생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 옳도다. 57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69년생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면책에 할 것이다. 81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93년생 수효보다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63, 30</p> <p>34년생 대세에 휩쓸리다보면 좆대 없다는 말을 듣는다. 46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58년생 조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상을 예견한 셈이다. 70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82년생 동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6, 04</p> <p>35년생 선함을 인식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47년생 계획대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리라. 59년생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리라. 71년생 끝나는 마당에 털어 낼 수도 있다. 83년생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38, 43</p>